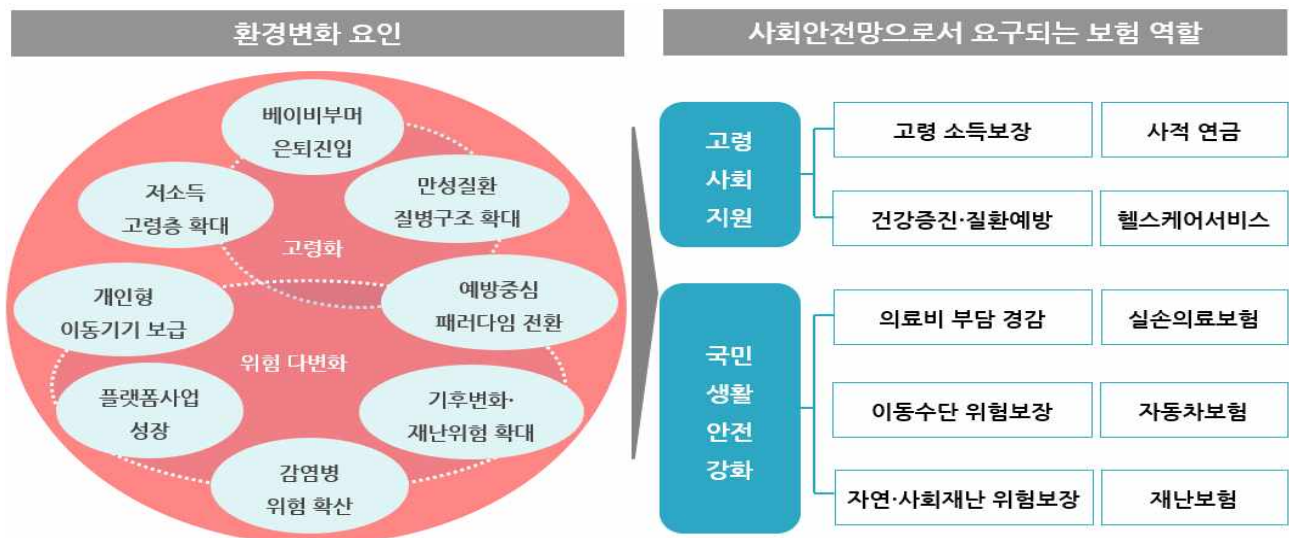


보험연구원, 『보험산업 진단과 과제(II)-사회안전망』 CEO Report 발간

“소득·건강·재난 안전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”

- 보험연구원(원장 안철경)은 『보험산업 진단과 과제(II)-사회안전망』이라는 진단과 과제 시리즈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함(CEO Report 2020-06)
-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에 따른 보험산업의 역할을 진단하고,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
- 그동안 보험산업은 사적연금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안전과 건강안전에 위해 노력해 왔으며, 자동차보험 및 재난보험을 통해 일상 및 재난 안전 강화에 기여해왔음

<그림> 환경변화와 보험산업의 역할



- 그러나 보험산업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 확대·강화 요구에 부응하려면
- ① 사적연금 가입 확대와 연금수령, ② 헬스케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, ③ 실손의료보험의 상품·심사, ④ 자동차보험 보장체계, ⑤ 재난관리 민·관 파트너십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험산업의 역할이 필요함
 - (소득안전: 사적연금) 퇴직연금 자동가입제와 연금수령 원칙을 제도화하고, 세제지원·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 유도가 필요함
 - (건강안전: 헬스케어)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뉴딜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
 - (건강안전: 실손보험) 실손가입자의 의료이용에 비례하는 상품·보험료 구조로 개편하고, 국민의료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비급여진료 가이드라인 및 전문심사기관 구축이 필요함
 - (자동차보험) 한의과 수가기준 마련 및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 치료비·수리비 기준을 합리화하고, 유상운송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함
 - (재난보험) 신종 재난에 대비하여 보험시장을 활용하는 공·사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, 감염병 위험 보장 등 재난위험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과 중소기업의 노출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
- 보험산업의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가 국민의 노후·생활안전 지원과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으로 이어져, 조화로운 공·사 파트너십의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첨부: CEO Report “보험산업 진단과 과제(II) - 사회안전망”. 끝.